

‘WEA 서울총회 반대한다’ 규탄 집회

WCC·WEA
반대운동연대

WEA에 WCC·가톨릭과의 약합 중단촉구



‘2025 WEA 서울총회’ 개막일인 10월 27일(월)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서편 인도에서는 ‘WEA 반대 10/27 대성회’가 진행됐다. 이 집회는 WCC·WEA 반대 운동연대와 ‘예수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언’ 등이 주제였다. 그래서 운가를 바탕 속에서도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 로마 가톨릭과의 신앙 직제일치를 반대하며 복음을 지키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축제 분위기의 WEA 총회와는 달리, “한국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이었다. 개회예배는 WCC·WEA 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맹연환 목사(WEA 서울총회 반대연합회 대표회장)는 개회선언에서 “우리 후대의 교회가 진리를 지켜나가도록,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하나님과의 교회를 굳게 세워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김정환 목사(한기총 전 사무총장, 전 공동회장)는 대표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

예배 순서에서는 IBMS 초종고 신안공동체가 특별찬양으로 은혜를 더했다. 박종은 목사(광주 겨자씨교회)는 ‘다윗의 길과 여보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인 구원자이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도들이 이 이 추운 날씨에 모인 이유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순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WEA의 연합운동은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훼손주의적 경향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험한 미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고 오직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만 존재한다”며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연합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과 순결한 복음의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지금은 오직 예수만 붙들어야 할 때”

이어진 3부 ‘WEA 서울총회 반대 규탄대회’는 윤덕남 목사(한국기독교교단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충수 목사(순종교회)의



기도와 리빌더 찬양단의 특별찬양 후, 고병찬 목사(운정장준교회)와 강철민 목사(리빌더처치)가 규탄사를 전했다.

고병찬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평화와 연합을 외치지만, 복음의 본질이 훼들리고 있다”며 “WEA 서울총회는 하나님과 기뻐하실 자리가 아니라, 회개와 통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며 “순교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일본주의 평화와 혼합주의의 신앙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순교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소중한 가치이며, 지금이야 말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강철민 목사도 “종교통합운동은 마치 흔들의 꿀짜기에 세워진 가증한 제단과 같다”며 “종교 혼합은 다음 세대를 우상에게 내어주는 바알 제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무릎 끌지 않는 7천의 거룩한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라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위에 다시 진리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거짓과 기만을 무너뜨려 거룩한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길 기도한다”고 선포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외침 속에 마무리

규탄사 이후 변형탁 목사의 선창으로 구호 제창이 이어졌다.

△WEA를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 미혹의 영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WEA는 종교다원주의 WCC와 마리아 우상숭배 집단 로마 가톨릭과의 약합을 즉각 중단하라!

△WEA는 종교혼합의 세계적 음모조직 GCF에서 즉시 탈퇴하라!

△WEA는 신복음주의의 비성경적 누룩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영적 대각성이 임할지어다!”

현장은 ‘아멘’과 함성으로 가득했다.

이원용 목사(미사바구국기도회)는 한국교회를 위한 특별기도를 드렸으며, 이재현 목사(청어비전교회 담임, 파루시아 아카데미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끝으로 마침기도와 함께 ‘WEA 서울총회 반대집회’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WEA는 불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 미혹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한다. WEA는 종교다원주의 WCC와 마리아 우상숭배 집단인 로마 가톨릭과의 종교적 혼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WEA는 종교혼합과 종교통합의 세계적 음모조직인 GCF에서 즉각 탈퇴하라. WEA는 신복음주의의 부폐와 비성경적 요소를 깨닫고 즉시 통화하며 철저히 회개하라”고 주장했다.



제주 도민들, ‘퀴어 행사 반대 도민대회’ 개최

퀴어 축제 및 인권평화현장 반대, 아이들 눈감아야 하는 축제 중단 촉구

‘퀴어 행사 반대 제주도민대회’가 11월 1일(토)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사거리에서 개최됐다.

제주기독교단협의회(수석부회장 김경수 목사) 주최, 제주성시화운동 및 제주거북한방과 제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 도민대회에는 5백여 명의 성도들과 도민들이 참여해 제주 지역에서 계속되는 퀴어축제 및 제주인권평화현장 제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퀴어 행사 반대 및 제주평화인권현장 폐기 촉구 성명서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고향 제주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정하고 평화로운 섬 제주,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라고 우리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분열과 혼란의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아이들이 눈을 감아야 하는 축제를 멈춰주십시오!

퀴어축제는 ‘인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다수민의 상식과 윤리에 반하는 선정적이고 민망한 모습들을 공공장소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정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퀴어축제 내용과 분위기가 너무 낯설고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에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가려야 할 유해한 장면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과연 ‘축제’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퀴어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퀴어 행사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혼란과 병증을 가르치는 퀴어행사가 계속돼도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순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



조용목 목사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8,9)

사람은 반드시 죽을 뿐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히 9:27) 그 심판이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가 얻은 천하가 그 영혼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제일 급선무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는 완전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연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에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에게 주어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두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은 이삭을 번째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약 2:21,22)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라합은 주막에 온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잡혀가지 않도록 숨겨주고 그들의 약속대로 행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약 2:25,26) 행함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와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습니다. 예배하기를 즐겨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됩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편에 서서 행합니다. 복음을 훈장하게 하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한 사회질서와 ‘미풍양속’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노출 및 성적 표현의 행사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3. 퀴어행사 때문에 도민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퀴어행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양성, 인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만, 제37조는 공공복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다수 시민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2. 행사에서 지나치게 드러나는 성적 표현과 모습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같은 개별 법령에서도 건전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 진단

미래목회포럼, AI 인구 변화 속 신앙 회복 강조

미래목회포럼(대표 황덕영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은 지난 10월 23일(목)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와 목회 계획’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방향성과 목회적 대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포럼에 앞서 황덕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은 교회의 반복적 행정 업무를 손쉽게 해주어 목회자들이 영적 돌봄과 리더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이제 사회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교회도 복음의 본질과 영적 성장을 회복하고, 서로의 삶과 가치를 나누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는 ‘2026 한국교회 트렌드’를 제시하며 AI 혁신, 인구



구조 변화, 가치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향후 10년간 한국교회의 변화를 진단했다.

최 박사는 “다가오는 2026년은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이 변화는 기업이나 정부뿐 아니라 교회의 조직, 리더십, 예배, 신앙교육 전반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AI 기반 행정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은 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재 이유와 영성의 본질을 묻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AI는 목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체할 수 없다”라며, “기술을 복음의 도구로 삼되, 신앙의 주체로 오인하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고신엘더포럼, ‘장로의 책무’ 주제 제2회 포럼

당회원 직무 및 노회원구성, 장로의 정체성에 관해 살펴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시니어들의 모인 ‘고신엘더포럼’이 지난 10월 25일(토) 서울 서대문 영천교회에서 ‘제2회 고신엘더포럼’을 개최하고 든든한 교회로의 성장을 위한 장로들의 역할에 관해 고민을 나눴다.

고신엘더포럼(대표 김형원 장로)은 장로의 정체성과 위상을 회복하고 고신교단과 교회의 발전 및 선교지평 확장을 위해 지난 4월 창립한 후 고신엘더포럼은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하고 성경에 나타난 장로상을 돌아보는 한편, 교단과 교회현장에서의 고신장로의 정체성에 관해 살피며 큰 반향을 얻기도 했다. 이날 포럼은 두 번째로 장로의 책무를 주제로 들며 역할과 노회의 구성에 대해 고민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덕현 목사(서울보은교회)는 ‘개체교회의 당회원 직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 목사는 “장로는 당회의 일원이므로 당회의 직무는 곧 장로

의 직무수행의 구체적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장로는 당회가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핵심 실행자이자 공동 결정자”라고 규정했다.

손 목사는 이어 “당회의 권위는 장로를 통해 목회적 돌봄과 행정적 결정으로 구체화 된다”라며, “따라서 장로직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신앙적 지도력과 실무적 현신이 요구되는 막중한 자리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재현 목사(화명중앙교회)는 ‘노회원 구성’에 대해 좋은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목사는 “노회가 구성되는 방식이나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주제를 정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단순히 반성에 그치지 않고 개선방법을 찾아 이상적인 노회를 구성하여 노회를 건강하게 유지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1면에서 이어짐

우리는 아이들이 눈을 감아야 하는 퀴어행사를 반대하며, 제주시가 다수 도민의 공의와 청소년 보호 원칙에 따라 퀴어행사의 공공장소 사용을 즉각 취소하고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도민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는 제주평화인권현장’을 폐기해 주십시오!

동성애 퀴어 행사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주평화인권현장’입니다. ‘평화와 인권’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였지만, 그 속에는 우리 도민의 마음속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험한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현장이 통과되면, 우리는 퀴어 행사의 문제점이나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과 견전한 성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차별이나 혐오’라는 딱

지가 붙어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자녀에게 견전한 윤리관을 가르치는 일조차 ‘차별’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와 제주 사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 이름으로 얹압당하고, 제주 사회 전체가 양심의 자유를 빼앗기고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정 폭거입니다.

‘현장’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선언적 성격이지만, 도덕적 구속력과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현장을 만드는 제정위원들이 모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위원들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계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는 인권 편향적인 사람들을 우대하여 제정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입니다.

제주평화인권현장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현장은 2조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 내고 결정한 성’이 ‘나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남자로, 저녁에는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당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정을 해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서공회, 해외 6개국 성경 기증

서울광역교회의 후원으로 37,230부 보내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균 목사)가 서울광역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해외 6개국에 성경 37,230부를 보내는 기증예식을 지난 10월 31일 가졌다.

이번 예식에서 미얀마·미얀마어 성경 5,290부, 몽골·몽골어 성경 3,870부, 시리아·아랍어 성경 4,000부, 케냐·영어 성경

/시편/잠언 9,150부, 프랑스어 신약/시편/잠언 810부,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어 신약 10,000부, 인도·카시어 성경 2,700부, 칸나다어 성경 4,140부를 보냈다. 서울광역교회는 2021년부터 온 세계를 예수의 피 묻은 성경으로 칠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현재까지 45개국에 총 292,849

부의 성경을 보내오고 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광역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반포되는 6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다.

미얀마성서공회 사무엘 아예 라 총무를 비롯하여 후원받는 성서공회 총무들은 영상 인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서울광역교회에 감사를 전했다.



세기총, 호주서 지회장 선교대회 진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제로 교제와 사역 나눠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세기총) 호주 지회장 선교대회가 지난달 20~24일 호주 시드니리버티교회(류병재 목사)에서 개최됐다.

40여 개국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는 세계선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동준비위원장 이승현 목사의 환영

사에 이어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가 대회사를 전했다. 전 대표회장은 “1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이 자리에서 되어 매우 기쁘다”고 감격을 말했고, 이에 세기총 오세아니아 회장 류병재 목사는 “다민족 도시인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10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데 시드니에서 이렇게 귀한 모임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서영 목사는 민 21:9 말씀을 본문으로 ‘민수기’라는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임명식에서는 새로운 지회장들이 선출됐고, 모두의 박수와 축복 속에 사역에 대한 다짐들이 이어졌다.

카르기즈스탄 지회장 장금주 선교사, 카메룬 지회장 윤원로 선교사, 헝가리 지

회장 신은규 선교사, 미국 뉴저지 지회장 육민호 목사, 도미니카공화국 지회장 최광규 선교사,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회장 정재식 선교사 등은 각자의 사역을 공유하며 격려했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에는 사경회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특히 이승현 목사는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기도 했다.

아신대, ‘땅끝에서 온 이웃’ 주제로

이주민 위한 ACTS 선교대회 개최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지난 10월 29~30일 이주민 선교를 위한 ‘땅끝에서 온 이웃’을 주제로 제47회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ACTS 선교대회는 250만 명의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먼저 첫째날에는 10개 선교단체(국제

복음선교회, CCC GSM 해외선교팀, GMP 개척선교회, HOPE선교회, OMF, WEC 국제선교회, 비전선교단,

한국SIM국제선교회, 한국오엠, ACTS 선교국)들이 아신대 본관 잔디마당에 선교부스를 만들고 선교단체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여 학생들과 참가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날에는 선교현신에 배를 드리며 아신대 국제교육원 외국인

학생들이 각국 국기를 들고 입장했다.

이어서 신대원 동문화 부회장 안재홍 목사의 기도, 외국인학생들의 특송, 한상화 교수의 현금기도, 아신대 타문화권사자 회 대표 이재명 선교사의 축사, 한밭 장로교회 장로이자 주예랄 대표 이사인 강사돈 장로의 명예박사 수여 등의 순서가 뒤를 이었다. 이날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상임대표 정노화 선교사는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을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정 선교사는 “아신대가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한국 교계가 이주민 선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주민 선교가 선교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주민 선교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선교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2025 자립준비청년 후원금’ 전달

홀트아동복지회-새음학교 안정적 사회 정착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지난 10월 15일(목), 기독교 대안교육기관 새음학교(교장 이해리, 경기도 구리시 소재)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05년, 미래 사회의 전인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교한 새음학교는 2006년부터 19년째 매년 지리산 종주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나눔을 실천해왔다. 특히 2017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지리산 나눔 종주’를 이어오며 학생들이 직접 걸으며 모은 후원금이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지희 홀트아동복지회 나눔기획팀 장은 “매년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새음학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완주하고 그 마음을 나눔으로 전한 것이 정말 대견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아대책, ‘2025 가정밖청소년 지원토론회’

자립 지원의 접근성·지속성·통합성 등 정책적 과제 논의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 가정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가정밖청소년’, ‘지속 가능한 지원 프로토콜을 세우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원이 ‘제도 밖 거리에 머무는 아이들, 권리 기반의 지속적 자립 지원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었다.

발제 후 토론회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자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실무자, 연구자, 청소년 당사자가 함께 ‘법·제도 미비’와 ‘낙인 해소’, ‘민관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접근성 측면에서 보호자 통보 의무 등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청소년이 둘려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성 측면에서는 단기적 보호를 넘어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장기 개입과 퇴소 이후 연속 지원,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 자립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참여 기반 구조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아울러 통합 측면에서는 부처 간 분절을 해소하고, 현장·연구·정책·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 생명의 말씀 |



김 바 을 목사
• 경기지방회 전임회장
• 순복음진리교회 담임

‘태초에’

창 1:1

‘첫째(leader)가 있는 집으로 하나님인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가 됩니다. 원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창세기는 인류창조의 시간적 역사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리더)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을 모든 피조물들이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구속사적 내용을 기술한 책이 됩니다.

이러한 번역은 조금 생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내용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 기가 애굽에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인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내용을 기술한 책임을 볼 때에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한 ‘바라(창조하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될 때에만 사용되는

데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창조하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글자 모양을 보면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머리’를 의미하는 ‘에쉬’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알렙’이 모여서 형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머리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하시는 일이 창조임을 보여 줍니다.

창 1:1에서 이(바라) 단어는 칼, 완료로 분해됩니다.

‘칼’은 동사의 단순 형태이며 ‘완료’는 행동이 이미 끝난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완료는 시간적 완료의 개념보다는 일의 완성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엘로힘(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아’의 복수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고귀하거나, 두려운 대상이나 사람을 복수로 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로 ‘엘로아’와 ‘엘로힘’이 모두 사용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로 복

수로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창 1:1 하반절, 엘(목적격 조사) 핫(정관사, 그) 쇼마임(명사, 하늘) 웨엘(접속사·대격, 그리고) 하(정관사, 그) 아랫츠(명사, 땅) ‘핫쇼마임’은 ‘하늘’이라는 의미의 ‘쇼마임’에 정관사 ‘하’가 합쳐진 형태인데, 성경에서 ‘쇼마임’은 공중의 하늘에서부터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늘까지 두루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쇼마임’이 어떤 하늘을 가리키는지를 문맥적으로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쇼마임’ 앞에 정관사가 붙을 때와 안 붙을 때에 어떻게 다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정관사는 특별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므로 ‘핫쇼마임’은 물리적인 하늘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늘’을 주관하고 계실 때”를 말합니다. ‘하아랫츠’는 땅(earth)이라

는 의미의 ‘에레츠’에 정관사 ‘하’가 합쳐진 형태인데, ‘에레츠’의 글자 형태를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알렙’과 ‘머리’를 의미하는 ‘에쉬’ 그리고 낚시바늘을 의미하는 ‘레츠’가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땅’이란 머리되시는 분이 낚시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땅’이란 단어 역시 정관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 1:1의 본문해석은 “(하나님이) 첫째(리더)로 계시는 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원전해석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해석자 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곧 그리스도의 입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나오는, 즉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호로고스)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성경이 진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간과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롬^^

동정

해비타트 적십자 박애장 금장 수상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 장로)가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적십자 박애장 금장을 수상했습니다. 적십자 박애장은 위난에 처한 인명 구제 및 안전 도모, 불우한 자의 복지 증진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포상입니다.

윤항기 목사, 찬양간증집회 연다



국민가수 윤항기 목사가 11월 30일(주일) 오전 11시 10분 순천 주성교회(문영찬 목사)에서 ‘새생명행복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전주 샘물교회(서화평 목사)에서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과 함께 지역 주민 초청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목사는 목사임직 이후 찬양간증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이드포스트’ 한국판 창간 60년



월간 ‘가이드포스트’(Guideposts) 한국판 창간 60주년 감사예배가 11월 7일(금) 오후 서울 종구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 드림홀에서 개최됐다. 이 예배는 가이드포스트와 영락교회 제1남선교회(1남)가 공동 주최했다.

한동대 강동 교육벨트 업무협약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선)가 수도권 고교 및 대학들과 손잡고 미래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한동대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더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업무협약 및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나서고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한민국 국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가의 중요 기관들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잘·잘못을 찾아서, 국가 전체가 바로 가도록 하는, 국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그렇게도 중요한 국정감사가 사적인 감정에 이용되는 걸 나쁜 현장이 되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뛰어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간이평가보고서를 10월 28일에 냈는데, ‘2025년 국감은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이며, 저질 국정감사로 F학점’이라고 규정한다. 이 단체는 각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각계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여하여, 27년 동안 국감을 모니터해 온 국감 전문 모니터단으로 알려진다.

이 단체가 분석한 2025년도 국정감사 특징을 보면, 가장 먼저 손꼽힌 곳은

법사위원장의 파행이다. 교섭단체의 간사 선출을 부결시켜, 국회법 제49조를 위반하였고, 인사하려 온 대법원장의 이석(移席)을 90분 동안 허락하지 않았으며, 현장 검증을 빌미로 대법원 법대에 올라갔으며, 감사위원의 발언권과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또 감사위원의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을 위원장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감 기간 중에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어, 낮 뜨거운 진실 공방이 오갔다. 이 결혼식 문제는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망가졌느냐하는 것이 인증된 셈이다. 협직 상임위원회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청첩장을 돌리고, 심지어 잠간 동안 신용카드 결제 링크까지 했으니,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피감기관과 대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그 상임위원회장은 반성이나

사과한마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거기에서 피감기관이 되어야 할 정부에는 여당의 중진 의원 7명이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부에도 속해 있고, 입법부에도 속해 있어, 때로는 피감 기관장이 된 자신들이 감사위원들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회의원·장관들은 버젓이 각각 소속 상임위원회에도 속해 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퇴장 명령을 날렸다. 또 감사를 받으려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자신의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퇴장시키고,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문제 삼았던 감사원장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에게 겸찰 수사를 사과하라고 하는 등, 그야말로 국감이 아닌 정쟁과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수준으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입법부의 민낯이 아닌가? 이런 정치인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언론이다. 그러나 언론들조차, 이런 국회의원들의 비행(?)을 눈감아 주고 있지는 않은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국민 대표와 일꾼으로 뽑을 때는 이런 일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국민들의 입장과 국가를 위한 일에 충성하는 선량(選良)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찌 어찌하여 국민들의 선택으로 금메달을 달았다 하여도, 자격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라도 보여야 한다.

더 이상 국감장을 사감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전락시킨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들도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리는 의원들에 대한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바로 간다.

한편 한국의 입법부(국회)는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일까?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월드저스트프로젝트(WJP)에 따르면, <2025 세계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국회는 조사 대상 143개국 가운데 68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지난 2015년부터 전 세계 143개국의 정부·권한에 대한 경제·부패·의 부재·열린 정부·기본권·질서·보안·규제·집행·민사·사법·형사·사법 등의 47개 지표를 평가하여 법치주의의 점수를 매기고 공개해 왔다.

그런데 사법부(법원)의 점수와 등위를 살펴보면, 민사 사법은 0.76점으로 13위, 형사 사법은 0.72로 15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 형사재판의 시의성과 효율성은 0.76점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국민들의 입장과 국가를 위한 일에 충성하는 선량(選良)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경제도 0.67점으로 38위에 그쳤다고 한다.

왜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수준 낮은 기관이 된 것인가는 세계적인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거대한 힘으로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국회는 자신들부터 돌아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스스로를 먼저 개혁하기를 바란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태국

“태국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주시 기를 기도합니다. 싸웠디!

방콕안디옥교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부엌 및 소그룹 모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공사에는 반부아 씨앗 목사 부부와 판권

목사, 아누차 전도사 부부와 차이차나 전도사 부부가 방콕안디옥교회에서 같이 지내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배

나 늘어났지만 매순간 힘을 주시고 마치까지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5주 동안 기존 부엌을 철거하는 과정 중 면지로 인해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철거한 타일에 떨려 상처가 나서 피도 흘리고, 잠시 동안 이민자들이 달라 목회자들 간의 암묵적 침묵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고 함께 지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돈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안에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저녁에 다같이 나가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맥도널드에 들렸는데 시골에서 살다보니 맥도널드에 가기도 쉽지 않다보니 진입하는 과정 중에 손을 인식기 앞에 대는 방법을 몰라 손을 훔들기도 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얼떨결에 들어오던 모습을 이야기 하며 서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교회 뒷 펜던지를 옆 건물 주인이 임의로 가림막 담장을 막아서 담당하기도 했고 불편함이 있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진 철거를 해서 뒷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배 후에 무거운 장의자를 밀어내고 테이블을 펴고 접는 번거로움 없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소그룹 모임도 할 공간이 생겨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평생순(원주CC) 동기들, 김학용 집사 부부, 김진선 집사, 도혜정 집사 부부, 에어부산 신우희, 김유관 집사 내외, 자녀들 그리고 방콕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한영 혼 구하기 운동을 시작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단체 시비에 걸린 교회로 빠져 나가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환경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으고 있는데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부아교회

울타리 공사는 일부 구간만 남겨 놓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목회자 부부와 성도들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여러 정황으로 다시 시작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입니다. 부엌공사로 목회자 부부가 교회에 기거할 때 상태가 안 좋아 긴급 후송을 해서 치료를

받아 퇴원하였고, 저희 부부도 공사가 끝난 저녁에 가서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에 차는 가래를 자주 제거해 주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남능짜이디어오교회

남능짜이디어오교회는 교회 건축이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이 귀하고 감사합니다.

아누차 전도사 팔의 이름은 움인데 지난 학기 부터 방콕바이를 세미나리(BBS)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 태어난 딸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주일 예배 후에는 셀 모임을 인도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정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총분교회

자립을 위해 시작한 닦강 공사는 1차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 판로가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있었는데 갑자기 발생했던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으로 포격전이 벌어지고 지금도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서 판로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양국의 관계가 회복 될 시기를 기다리며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족 이모자모

큰 딸 주선이는 잠시 한국과 태국 방문차 들어 와 있습니다. 둘째 주은이는 2년 차 한국생활(국제학교)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기는 나눔플러스와 수산나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서 대학원(선교신학) 첫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치경찰단과 첫 만남 갖고 성탄축하예배 준비

기독교 신우회원들과 함께 '빛과 사랑의 공동체' 다짐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김건수 목사는 지난 11월 6일(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종익 경무관)을 방문해 경무위원회와 단장 간의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오종익 단장이 부임한 이후 기독교계와 가진 첫 교류의 자리로, 신앙을 매개로 한 따뜻한 협력의 물꼬를 떴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모임에서 자치경찰단과 경무위원회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초 자치경찰단 내에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단원들과 함께 점등식 및 성탄감사예배를 드리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경찰 단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따뜻함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무위원회는 오종익 단장 및 간부들과의 첫 만남을 기념하여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했고, 단장으로부터 소정의 기념



메달을 선물로 받으며 우의를 다졌다.

오종익 단장은 "자치경찰단의 사명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사랑의 실천에도 있다"며 "기독교 신우회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예배와 교제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새로 완공된 자치경찰단 신청사에는 경무위원회 예상으로, 향후 자치경찰단 내 기독교 신우회원들과 경무위원회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신양의 쉼터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건수 목사는 "이번 만남을 통해 공직사회 안에서도 복음의 빛이 더욱 확산되길 바라며, 성탄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경찰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 지역 공직사회와 교계가 함께 협력하여 신양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세워가는 뜻깊은 첫걸음이 되었으며, 앞으로 자치경찰단 내 신우회 활동과 지역 복음화 사역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로 가을여행 다녀와 영적 재충전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의 감동을 다시 새기다”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김상운 목사)는 지난 10월 27일(월) 아침 7시 30분, 회원들과 함께 서울로 가을여행을 떠났다.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번 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감사와 쉼을 누리며 영적 재충전을 얻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첫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의 '너른마당'에 도착한 회원들은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료원에서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 생애를 바친 선교사들의 희생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화진홀에 들어섰을 때 들려오는 암흑과 파도의 음향 연출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



사들의 헌신을 실감하게 했다. 한 참석자는 "그 당시의 아픔과 오늘의 번영이 교차하며, 하나님께서 나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한강 선착장으로 이동한 회원들은 요트를 타며 서울의 발전된 풍경을 감상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시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스레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마지막으로 점심과 저녁식사를 정성껏 섭취한 교회와 목회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가 다시 사역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었다.

석자는 "감사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전북지방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위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회원들 간의 사랑과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복된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점심과 저녁식사를 정성껏 섭취한 교회와 목회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가 다시 사역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었다.

충북지방회, 교역자 부부 한마음 체육대회 열어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윤배 목사)는 지난 10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청주시 북이면 다목적체육관에서 '교역자 부부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즐겁고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체육부장 유병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윤광진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김윤배 목사의 말씀 선포, 체육위원장 김윤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드려졌다. 김윤배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사역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깨를 맞대며 걸어가는 동역의 길"이라며 "한마음으로 연합할 때 교회마다 하나님 의 큰 은혜가 있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예배 후 본격적인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지방회 소속 34개 교회는 동부 17개 교회와 서부 17개 교회로 나뉘어 공구리기, 투호, 제기차기, 배드민턴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오전 경기를 진행하며 화합



의 시간을 가졌다.

점심시간에는 푸짐한 간식으로 식사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웃음을 넘치는 담소의 시간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배구, 족구, 이어달리기 순으로 경기가 이어졌고, 열띤 응원 속에 백팀이 승리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에서는 모든 참가자에게 푸짐한 상품이 돌아가 기쁨이 배가되었으며, 일부 참석자는

두 번의 행운을 거머쥐는 즐거운 해프닝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윤배 목사는 "오늘 하루 교역자와 사모님들이 웃음과 감동으로 하나 된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믿는다"며 "이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더 따뜻하게 섬기자"고 인사했다. 이어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주신 가을 정취 속 '한마음 나들이'

‘가을나들이 및 교역자 친교회’ 가져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김은수 목사)는 지난 10월 24일(금) 문경새재 일대에서 '가을나들이 및 교역자 친교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바쁜 사역 속에서 잠시 쉼을 얻고, 지방회 교역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 부부들은 문경새재의 단풍길을 함께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고, 이어 지난해에서 레일바이크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참가자들은 "사역의 피로가 풀리고 동역자들과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레일바이크 체험 중 함께 웃고 사진을 나누며 형제애를 다지는

이러한 교제의 자리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며 기뻐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감사 기도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사역자 간의 유대와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복한 목회자,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자”

영인산휴양림에서 가을야유회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10월 28일(화) 충남 아산의 영인산 휴양림에서 가을야유회 및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회 소속 교역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친교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먼저 인근 식당에서 종식을 나눈 뒤 휴양림으로 이동해 예배로 시작되었다. 예배는 종무 김진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효신 목사의 기도, 성경봉독, 그리고 사모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이 이어졌다. 이후 지방회 부회장 김진현 목사가 '행복한 목회자'(신 33:27~2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복을 멀리서만 바라본다"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지킬 때,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참된 행복이 있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특별한 사랑의 표시"라며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행복한 사명자로 서자"고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종무 김진태 목사의 인도로 나와 교단, 지방회, 그리고 병중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한 합심기도가 드려졌다. 박승리 목사의 헌금기도와 광고 후, 전직회장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회장 김남수 목사의 인도로 월례회가 진행되어 사업보고 및 주요 안건을 처리했으며, 지방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추석 선물(사과 1BOX)이 참석자들에게 증정되었다. 또한 인근 카페에서 박서현 목사의 섬김으로 교제의 시간을 나누며 따뜻한 동역의 정을 나누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참석자들은 감사와 기쁨 속에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가며, 주어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현지 리더 세운 건강한 자립선교의 열매”

필리핀 다바오지역 선교 사역 성료

충남지방회



교회 자립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300여 명 대상 지도자 컨퍼런스, 영적 부흥의 불씨 지펴

입직예배에 이어 열린 지도자 컨퍼런스에는 약 300여 명의 현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참석했다. 말씀을 통한 영적 재무장과 실제적인 리더십 훈련이 함께 이루어지며, 다바오 지역 교회들에 새로운 영적 부흥의 불씨를 지폈다.

또한 선교팀 일부는 선교사가 개척·분립한 지역을 방문하여 미용봉사,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선물 나눔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선교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린다"며 "현지인 리더를 세워 자립하는 선교의 현장을 직접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필리핀 다바오 선교 사역은 '건강한 자립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며,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에 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교는 현지 리더십을 세우고 자립 가능한 선교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교회에 큰 도전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현지인 14명 임직… 자립선교의 모

범제시

선교팀은 다바오 선교지에서 현지 교회 지도자 임직예배를 드리며 현신된 일

꾼 14명을 세웠다.

이날 예배에서는 목사 5명, 안수집사 3

명, 권사 6명이 임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성부 흥사회 회장 김건수 목사가

집회 강사자 안수위원으로, 조은혜 목사(상임종무)가 함께 참여했으며, 순복음

참아름다운교회와 안병찬 목사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이어온 현신적인 섬김의 결실이 이날 예배를 통해 열매로 나타났다.

특히 박여호수아 선교사는 약 30여년

간 현지인들을 훈련시켜 10여 개의 자립

교회를 세우고 재파송에 성공하는 등 건

강한 선교의 모범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현지인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며 "선교의 본질은 현지

기쁨을 받고 있다.

“형법 손대지 않고 모자보건법만?”

“낙태 비범죄화보다 생명보호 입법이 우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지난 10월 28일(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만사 낙태와 약물 낙태를 허용하려는 법 개정 시도에 대해 "형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모자보건법만 손보는 것은 학법이 명시한 생명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정치적 품수"라며 "국회는 먼저 형법 제269조(낙태죄)와 제270조(의사 낙태죄)를 개정해 생명보호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결정의 핵심은 낙태 비범죄화가 아닌 ‘생명보호 입법’”

연합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결정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생명보호를 전제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의 조화를 입법으로 구체화하려는 명령이었다"며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비하라는 시한을 넘긴 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법은 그대로 두고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려는 시도는 현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려면 형법상 생명보호 조항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는 단순한 선택 아닌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연합은 낙태 문제를 단순히 여성의 권리나 선택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이 생명을 포기하면 사회의 존엄도 무너진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 또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제36조 제2항(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을 언급하며, "국가는 여성과 태아를 함께 보호해야 하며,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임을 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태아 보호는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 질서를 세우는 문제이며, 생명 존중이 무너지면 인구 구조나 복지체계도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인들 "형법 공백 방지, 현재 취지 훼손하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형법의 공백을 방지한 채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결정을 뒤집는 행위"라며 입법부와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들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생명보다 선택의 자유가 앞서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낙태 합법화 논의보다 먼저 생명보호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 공백이 낳은 피해… 보호받지 못한 생명들"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의 서윤아 대표는 현재 결정 이후 발생한 현실적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생명이 무시되는 일이 늘고 있다"며 "법원이 '법이 없으니 보호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입법부의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한 대학병원 의사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시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낙태죄 조항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법의 부재가 생명 보호의 최소한의 기회마저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부의 호소 "태아는 선택의 대상 아닌, 살아 있는 생명"

현장에는 임신 26주 차의 한 산모도 참석해 진심 어린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만사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최근 법안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며 "뱃속의 아기는 심장을 뛰게 하고 손발을 움직이는, 분명히 살아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해할 자유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여성의 권리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주 이후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며 "우리 사회가 생명선의 마지막 경계마저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생명은 선택 아닌 책임"… 국회에 입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생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며, 태아의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국회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을 방지하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형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모자보건법 개정은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생명존중 입법 촉구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국회가 생명보호의 법적 울타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예고했다.

충북 단양에서 가을 야유회 가져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친교와 힐링의 시간

대구·경북지방회

이어 단양의 대표 맛집으로 알려진 '마늘설갈비국수'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넘치는 교제를 이어갔다.

오후에는 단양 8경 중 하나인 도담삼봉 유람선을 타고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 생태관인 '다누리아쿠아리움'을 방문해 다양한 어종을 관람하며 자연의 신비를 체험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 속에서 쉼과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이번 야유회를 통해 대구·경북지방회 회원들은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주신 자연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형제애로 하나 되는 소중한 친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새 부흥 다짐… 지역복음화 위한 혁신 다짐

본향교회 이전 감사예배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강원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박규희 목사) 본향 교회(담임 김선경 목사)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여 지난 11월 4일(화) 오전 11시 본향교회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성황리에 드렸다.

이전 감사예배는 유허령 목사(지방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주영 목사(강릉순복음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김은숙 목사(선한순복음교회)

의 특송, 지방회장 박규희 목사(원주샘 물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사 43:18-19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본향교회를 통해 강원 지역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전하며 본향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했다.

예배는 김형준 목사(웨이치치교회)의 헌금기도 후 정원희 목사(정주효자문 교회)의 권면, 권용덕 목사(철원순복음 교회)의 축사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전임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축사, 본향교회 김선경 목사의 인사 및 광고 박순용 목사(원주송성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본향교회는 이번 성전 이전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드리는 감사와 기쁨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배와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성전 주소는 강원도 원주시 후석로 66번길 41-4에 위치하며, 이번 성전 이전은 강원지방회와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혁신 덕분에 이뤄졌다.

서울시·CTS·행복한출생, 저출생 극복 업무협약

교회 공간 활용한 ‘서울형 키즈카페’ 확산…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조성 앞장

서울특별시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이하 행복한미래), CTS기독교TV(이하 CTS)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세 기관은 10월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회의 유후공간을 활용한 돌봄 인프라 확충과 서울형 육아지원 정책 협력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경철 행복한미래 이사장(CTS 회장), CTS 공동대표이사이월 전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직전 감독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교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서울시와 CTS, 행복한미래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며, 좀처럼 아동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서울형 키즈카페'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이 CTS와 행복한미래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간이자 따뜻한 품을 지닌 공동체"라며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동에서 가을 수양회 겸 야유회 가져

자리산 자락에서 풍성한 가을의 은혜 누려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0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하동 일대에서 가을 수양회 겸 야유회를 가졌다.

이번 수양회는 맑고 쾌적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되어,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첫날 일행은 자리산 입구 관광지를 돌아보며 레일바이크를 체험하고, 한국문학 사에 큰 족적을 남긴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어 인근 대봉강 농가에서 판매하는 대봉 흥시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을의 풍요로움을 감사하고 친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석진강 일대의 다슬기 맛집에서 다슬기탕과 다슬기무침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숙소인 캠핑터리조트에 도착해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더욱 청명한 하늘 아래 화개장터를 찾아 하동의 지역 특산물을 구경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하동 송림 숲에서 맨발걷기와 목회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귀가길에는 진영에 들러 함께 저녁식사를 나눈 후, 부산으로 돌아와 일정을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쉼과 교제, 영적 충전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지방회는 이어움을 뒤로하고, 11월 월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스포츠선교회 탁구선교회 12월 모임

교단산하 스포츠선교회 탁구선교회에서는 건강한 생활체육 탁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함께 복음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고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찬양교회(담임 엄기설 목사)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41번길 45

총무 : 기호선 목사

서기 : 문찬우 목사

회계 : 이반석 목사



참여문의 010-5145-3816

믿음의 교제와 체력단련으로 함께 하실 동역자님을 기다립니다.

※초보자 레슨 환영합니다!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은 헌법 파괴”

“2025 인구조사 방침,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0개 단체 연합)은 10월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방침은 헌법과 법률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 편의로 혼인제도 바꾸려는 월권적 발상”

성명에 따르면, 이번 정부 결정은 단순한 통계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동성결혼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사회제도적 시도로 규정된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법 역시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체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행정의 편의나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근본을 재

편하려는 이념적 공세”라며 “통계조사 항목 하나가 사실상 혼인제도의 성격을 바꾸는 사전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대법원·현재 모두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판시”

단체들은 헌법과 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제시하며 정부 방침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1999.2.12. 선고 97드612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란 1남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1997.7.16. 선고 95헌가6 결정)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은 “배우자란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하는 개념임”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원이 명시한 ‘혼인의 정의’를 행정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입법권을 넘어선 명백한 행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동의 없는 사회 구조 개편은 민주주의 혼란”

성명은 또한 이번 조치를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결정”으로 규정했다. 단체들은 “동성혼의 허용 여부는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정부가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지침으로 추진하는 것은 혼정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 가치와 사회 질서를 바꾸려면 반드시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제도 수호 위해 법적·사회적 대응 나설 것”이라고 한 두 연합은 정부의 즉각적인 방침 철회와 관련 부처의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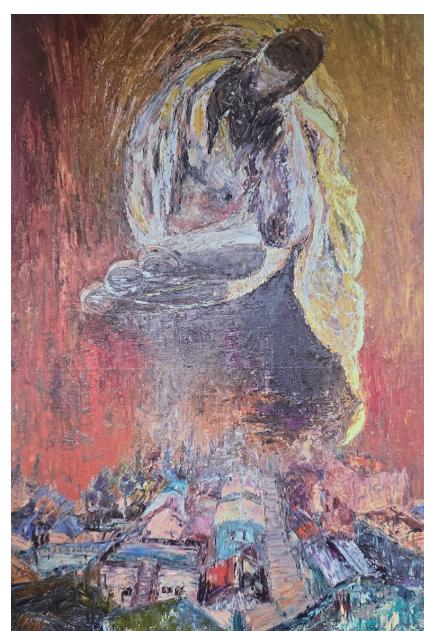
또한 국회에 대해 “이번 위헌적 시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 없는 혼인제도 변경은 명백한 위헌이며, 행정 독주는 국민의 저항과 법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혼인제도와 가족 질서를 끝까지 수호할 것이며, 이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등 강력한 법적·사회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입장문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성명은 “정부는 즉각 2025 인구조사에서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 방침을 철회하라!”는 구호와 함께 발표되었으며, 단체들은 향후 전국적인 기도회와 생명·가정 가치 수호 캠페인 전개를 예고했다.

임윤임 목사 제9회 개인전 감사예배 드려

신앙과 예술의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화폭’으로 하나님께 영광



임윤임 작품:내게 오라

2025년 11월 8일(토)~15일(토), 한중문화관 화교전시관 1층

예장 합동개혁 시온성교회 담임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임윤임 목사의 제9회 개인전이 11월 8일(토)부터 15일(토)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랑로 238번지에 위치한 한중문화관 화교전시관 1층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신앙과 예술의 일치’라는 주제로,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캔버스 위에 녹여낸 작품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임 목사는 한 점 한 점의 작품 속에 기도와 묵

상을 담으며 신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여정을 표현했다.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본격적인 전시 개막에 앞서 11월 8일 오후 3시, 한중문화관 전시관 현장에서 ‘제9회 개인전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예배는 임승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다.

이후 남윤국 목사는 창 12:1 말씀을 본문으로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술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온 임윤임 목사님의 삶에 존경을 표하고 더욱 크게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이 될 것”을 권면했다.

이어 임마누엘 선교사와 문병근 필리핀 선교사, 이진선 권사, 김정호 전도사 부부의 축사와 축가가 이어졌으며, 감사의 인사 시간에는 임윤임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홉 번째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가 빛내주신 모든 분들과 기도로 동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예배는 남윤국 이사장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2부 순서로 테이프 커팅과 케이크 커팅식을 통해 참석자 전원이 전시 개막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앙의 봄길로 새긴 ‘빛과 소망’의 이야기

이번 전시에는 임 목사가 기도로 준비한 신작들이 선보였다. 구원자 예수를 주제로 한 작품을

비롯해 ‘소망의 빛’, ‘임재’, ‘열매 있는 삶’, ‘오직 예수’, ‘축복의 통로’ 등 삶과 믿음을 예술로 고백하는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임 목사 특유의 밝고 강렬한 색채와 섬세한 붓 터치는 감상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신앙의 감동을 전했다.

임윤임 목사는 “예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또 하나님의 선교”라며 “그림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믿음으로 이어온 예술 사역의 여정

임윤임 화백은 2008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전시회를 이어오며 신앙예술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2015년 대한민국 무궁화미술 대전 종합대상(국회의장상)과 2019년 대한민국 종합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성과 신앙성을 겸비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의금은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그의 작품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선교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번 제9회 개인전은 임윤임 목사의 예술세계가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졌음을 보여주며,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림이 어떻게 영혼을 위로하고 세상을 밝히는지를 증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그림 속에 기도가 느껴진다”, “신앙이 예술로 표현된 귀한 작품이다”라고 전하며 감사와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온 믿음의 여정 위에서, 임윤임 목사는 오늘도 봄길로 복음을 전하는 ‘예술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010-8709-6981

교단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개최

교단 부흥사회(회장 김견수 목사)는 2025년 11월 17일(월)~18일(화) 1박2일 동안 부산 가나안수양관(원장 서정완)에서 개회예배를 드리고 부산 금정산에서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부흥사회 회장 : 김견수 목사 ☎ 010-3698-5764

글로벌선진학교(GVCS),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의 요람

주니어 사관생도과정 신설, 의·예술트랙 강화로 글로벌 리더로



글로벌선진학교(GEM·GVCS)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의 발걸음을 더욱 넓히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 문경캠퍼스에 ‘주니어 사관생도과정(Jr. Military Academy, JMA)’을 신설해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차세대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외교·안보 분야 전문인재 위한 Jr. Military Academy 설립

GVCS 주니어 사관생도과정(7-9학년)은 신앙과 인성,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기초 군사훈련 및 체력훈련, 그리고 글로벌 안보 감각을 갖춘 미래형 청소년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과목과 함께 집중력 향상 훈련, 기본 전술 및 단체 활동, 태권도·유단자 교육 등을 통해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게 된다. 또한 JMA 과정은 학생들이 집중력, 협동심, 책임감을 키우는 동시에 “국가관과 사명감, 자존감이 확립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GVCS 관계자는 “무너져가는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과 정서적 약점을 회복하고, 신앙과 애국심, 그리고 글로벌 감각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사관학교 진학 연계

GVCS는 지난 20여년간 국내외 명문대학 및 사관학교 진학 지도를 통해 뛰어난 결과를 거두어 왔다. 이번 JMA 과정 개설로 학생들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간호사관학교 등 국내 주요 사관학교 진학은 물론, 미국의 West Point(육군사관학교), Naval Academy, Air Force Academy 등 해외 군사학교 진학의 길도 열리게 된다.

*GVCS 교육 혁신 – ‘빛출형 트랙제’ 강화

GVCS는 이번 주니어 사관생도과정 신설과 함께 각 캠퍼스별 특화 교육 트랙을 통해 학생의 진로에 맞춘 교육 혁신을 진행 중이다.

문경캠퍼스: 생명과학 트랙을 의료·보건트랙

54-559-7051/44-686-6061

하나님의 음성을 음악으로 전하는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수원열린교회 창립 15주년 기념공연

하나님의 음성을 음악으로 전하는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대표 김혜영, 이하 킹스보이스)가 지난 10월 26일(주일) 경기도 수원 열린교회(담임 최민수 목사)의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은혜(Grace of Heaven)’를 주제로 열린교회가 걸어온 지난 15년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연출 도성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혜영 대표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김윤경, 바이올리니스트 한송이, 바리톤 권용만, 플라멩코 무용수 최민영, CCM 보컬리스트 권세인 등 세계 정상급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은 피아니스트 김윤경의 섬세한 터치로 시작되었다. 이어 김혜영 대표가 ‘주기도문’과 ‘은혜’



은혜와전리교회 김정원 장로 감사기도문

하나님의 진실되는 가르침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에 그 무엇도 저항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전능의 하나님께서 흘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불의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며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미래가 있는 믿음과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문을 열자 하나님도 없고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문을 닫을 자 없사온데 활짝 열어진 문 사이로 신령한 영광의 빛 비주인 통로를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길에서 영혼에 담겨진 주님께서 주신 것 마음에 새겨 놓은 오선지에 아름다운 큰 일하신 구원과 함께 은혜와 은총을 감사의 노래로 찬송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힘과 능력을 구하면 지혜까지 더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사는 자 기뻐하심을 알면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보혈로 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날, 저희들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구원받은 기쁨과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친미하며 하나님의 뜻 준행하기에 힘쓰는 저희에게 은혜를 더 하시려 부르시는 인자의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립니다. 흘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 중에 땅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여 자라남으로 곡식을 태어나게 하는 거대하고 위대한 어머니의 몸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지금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

는 말씀을 통하여 존귀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 영혼에 흘러넘치게 부으십니다. 능력이 비처럼 내려 강같이 임하게 하시며 꿀과 양진 젖으로 은혜의 풍성함으로 평안과 시름을 육신과 환경 가운데 채우고도 남게 하신 크신 권세로 복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고연 그러하며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의 기상 분별하고 알면서 하나님께는 마음 두지 않고 있으니 인생의 마지막 다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이 되면 곡식을 추수하여 알곡은 정성스럽게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와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웁니다. 추수 때는 반드시 닥쳐옵니다. 농부 대신 주님께서 알곡을 기쁨으로 곡간에 들이듯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녀들 하늘나라 낙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쭉정이로 여겨 세상 끝 날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쇠에 생긴 녹이 그 무쇠를 먹어 들어가며 마음 속 악이 그 몸을 망치듯 세상은 온통 망함에 종점에 이를 때 주님은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며 심판하러 오십니다. 삶 이란 곧 모태에서 무덤으로 향하는 잠시 잠깐의 나그네길 하나님 모른 이들 낭떠러지 도착지점 모르며 걷습니다.

인생 여성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에게 확실하고 진실한 답 줄 수 없고 이 땅에 생명, 아침이슬 방울 웃는 사이에 없어짐같이 속히 날아가듯 끝이 납니다.

잠 되고 진실한 대답 하나님께서 만이 주실 수 있으며 진정 알아야 할 것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하늘에 속한 비밀스러운 많은 것으로 알려 주시고 가르침도 내려 주심으로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원장

가족세트선교행전(일본선교)

사랑의 향기로 한 송이 복음의 꽃을 피우리라. 영원한 생명, 예수의 향기로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되리라.

2주 전에는 청주 양암교회 전도집회 저녁집회 바로직전 식사시간이었는데 헤어 스티일을 정리하려 들어갔다가 전도되어 그날 저녁에 출석하고 가족세트 창시자 박영수 목사의 영접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재 확신과 교회 다니겠다며 기뻐하였고 그 다음 날은 남편까지 전도되어 식사하러 왔다.

지난주는 청양순복음교회 전도집회 첫날 전도하다가 다리가 빠져 겹질려 지자 순식간에 한 발자욱도 디딜 수가 없었다. 응급실에 가니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상급병원에 가라고 의사소견서 의뢰서를 써주었다. 읍 밖으로 나가 흥성의료원에 가보니 복합 결절이 되었다는 것이다.

집근처 수원에 있는 병원이나 서울에 큰 병원으로 이동해서 수술치료를 받으라는 의뢰서를 써 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집회가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 밤에 기도했다. 교회가 우선이다. 집회가 우선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다. 영혼구원이 우선이다. 이렇게 결정하니 마음에 평온과 기쁨이 온다.

담임목사도 위기 속에서 기쁨으로 회복하고 3일 집회를 승리로 이끌었다. 30명이나 영접기도 하며 결신서 교적을 받아냈다. 다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오는 대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희락에 찬 승리의 감사와 기쁨의 기발한 휘날렸다.

되돌아오는 날도 간사이공항에서 단체로 플래카드·포토들을 들고 4개국으로 찬양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같이 박수를 치며 사진도 찍고 모두들 호응하는 멋진 경관이었다. 같이 따라서 영접기도도 하고 특히 케리포니아에서 관광 온 어르신을 직접 불들고 영접기도를 할 수 있었다. 서투른 영어 실력이지만 그래도 그들 외국인들에게 영접기도를 통하여 전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개무량이었다. 참으로 보람 있고 아름다운 시간 잊지 못할 현장들이었다.

목발집고도 9분이상이나 개인 영접기도하는 종괄사무총장 이수교수, 열정! 가족세트 전도는 오늘도 쉬지 않고 5대양 6대주 82억 인구를 향해 영접기도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족세트구원열차가 달리고 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목발집고도 종괄사무총장 이수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장기기증, 생명나눔 이름표 현정식

생명을 나눈 사랑이 공간에서 영원히 빛나기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이하 본부)는 지난 11월 1일(토) 오후 1시,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장미원에 자리한 '뇌사 장기기증인 기념공간'에서 '생명나눔 이름표 현정식 'Remem ber your love'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도너페밀리 68가정 등 1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를 기념공간 안내판에 직접 부착하며 사랑의 기억을 이어갔다.

이름표는 본부를 통해 도너페밀리를 3년째 지원하고 있는 한국다케다제약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이번 생명나눔 이름표 현정식은 기증인의 고귀한 뜻을 알리며 사회적으로 기증인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로 열어 유가족에게는 자금을 전하고 우리 사회에는 생명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발판을 마련했다.

2016년 뇌사로 세상을 떠나며 9명의 생명을

살린 故 김대건 씨의 어머니 흥순옥 씨(70세)는 "잊혀 가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남길 수 있어 큰 위로가 된다."라며, "이름표 현정식을 준비해 주신 본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또 2022년 아들 이승준 군을 떠나보낸 윤정원 씨(44세)는 "아이를 잃은 슬픔은 끝나지 않지만, 승준이가 남긴 사랑이 누군가의 가슴속에서 여

전히 힘차게 뛰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도너페밀리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생명나눔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정어린 시인이 뇌사 장기기증인을 추모하며 쓴 헌시 「사랑하는 사람」을 도너페밀리 장부순 부회장이 유가족을 대표해 낭독했다.

캄보디아 한인회장 정명규 선교사, 한기총 내방

고경환 대표회장과 환담... "올해만 400명 구조"

캄보디아 한인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정명규 선교사가 지난 11월 6일(목)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고경환 대표회장과 환담했다.

정 선교사는 캄보디아에서 교민 사회를 섬기는 동시에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 조직에 억류된 피해자들을 돋는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는 약 200명, 올해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범죄 단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며 "무엇보다 이런 위험한 현실이

널리 알려져 더 이상 한국 청년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 선교사는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수는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고경환 대표회장은 "위험한 환경 속에 서도 선한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근 사건들로 인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

지 않기를 바란다. 선교사님께서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가교 역할뿐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정명규 선교사는 지난 2013년, '동남아 12개국에 선교기지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품고 캄보디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현지인과 교민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으로, 건축·교육·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천일염은 100%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밸효균이 천일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가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유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37,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302-1777-9898-51 농협은행 김영국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22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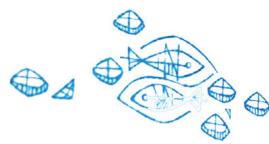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낮은 자리를 탐하라



높은 자리를 탐하는 세상이 되었다. 모두 높이지려고 한다. 높은 자리는 그 수가 낮은 자리보다 적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겸손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은 마음으로 높은 자리를 원한다.

교단 총회가 열리는 9월에는 교단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총회장이 되어 보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큰돈을 쓴다는 소리도 들플린다. 돈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기도 하며 지역 혹은 학연으로 편가르기도 한다. 심지어 이전투구까지 한다. 상대를 꺾아내려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서다.

그 같은 일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며 방법도 아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귀족의 호화저택이나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고 말구 유에 누우셨다. 또한 삶에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실천으로 증거해주셨다. 친히 제자들의 말을 씻기셨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높은 자리가 교만이고 낮은 자리는 겸손이라는 말은 아니다. 자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진 것이 교만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도

겸손을 실천할 수 있다면 축복이지만 자리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저주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높아진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었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일이 있다. '알다'의 영어 표현(understand)은 '낮은 자리에 선다'는 의미이다. 저도들은 낮은 자리에 서서 보아야 대중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상 훌륭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였다는 역사의 교훈을 알아야 한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앞선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성경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로마 감독 그레고리 대제는 자신을 감독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의 거처를 옮기기까지 하였다. 감독이 된 후에 그는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했다.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 처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앤드루 머리는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초며, 사랑도 겸손의 나무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했다. 겸손, 낮은 자리에 처함을 사랑보다 우선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는가. 토마스 A. 켄피스는 지식적 우월감에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우쭐대는 것도 교만이라고 했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은 떨어질 염려가 없는 은혜의 자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를 탐하라. 낮은 자리에 처함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진정한 지혜요, 축복이다.

"교만이 오면 육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1:2)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있는 자... 없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사화복의
의미를 찾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있는 것을 빼앗기며
원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
성령님은 죄인의 옷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없는 자에서 있는 자로 변화 받는 순간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와
확신 없이 교회에 다닐 때의 모습은
확실히 달랐다... 헬렐루야~ 아멘~

사설

사법정의실현 한국교회가 일깨워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국민참여 영장심사제' 논의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판사와 함께 일반 시민이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해 의견을 내도록 하는 특별법 발의가 그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절차 확립"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흔드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크다.

사법판단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자리로,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 비전문가가 개입해 여론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면, 사법판단의 객관성은 무너지고 감정이 법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오늘날 언론의 헤드라인이 판결보다 앞서가고, 여론이 재판의 방향을 흔드는 현실에서 이는 더욱 위험한 시도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의 감정이 아니라 법의 지배에 있다. 정치권이 사법 절차에 여론을 끌어들이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정의는 흔들린다.

최근 대법관 증원안, 헌법소원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일련의 입법 흐름 역시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데 사법부를 견제하겠다는 국회 스스로는 어떠한가. 국정감사장에서 고성과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감사의 본질은 사라진 채 정쟁의 무대가 되어 버린 현실을 국민은 실망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감사의 현장을 권력 투쟁의 연장선으로 삼고, 국정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보다 '정치적 장면 만들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입법기관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스스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과 절차의 정신을 무너뜨린다면,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법을 존중하겠는가. 입법권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법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야말로 먼저 자정(自淨)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 이익과 당리당략을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동시에 법 앞에 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통제하려는 대신, 입법부가 스스로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출발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정치적 입김을 가해 이를 중단시키는 등 사법정의 조차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진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길은 통제가 아니라 책임이다.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는 사회는 결국 정의를 잃는다. 법정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냉정과 진리 위에 세워진 곳이다.

문제의 뿌리는 결국 국민의 법의식과 도덕의식의 악화에 있다. 진리보다 감정이 앞서고, 사실보다 편의에 있다. 진리보다 편 가르기와 우세할 때 사회의 근본은 흔들린다. 그때마다 법은 정치의 도구가 되고, 재판은 여론의 무대로 변질된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양심의 마지막 보루로 서야 한다.

성경은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고 말씀한다. 진리를 잃은 자유는 방종으로, 책임 없는 권력은 타락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혼란은 단지 정치나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부패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정치 편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어야 한다.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법보다 양심이, 제도보다 정의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교회는 이 시대의 양심을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판사와 정치인, 언론과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있음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기도는 단지 신앙 행위가 아니라,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영적 기둥이다.

"법은 사람위에 있고, 하나님은 법위에 계신다." 법과 제도가 무너질 때, 교회의 기도가 그자리를 메워야 한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영적 나팔을 불며 국민의 눈을 열고,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세워갈 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다시 빛을 찾게 될 것이다.

목 양 신 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추대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2025.12.07 PM 4:00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85

